

#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

주강현\*

## <차례>

- I. 제주 해양사연구의 몇 가지 한계와 그 전제 조건
- II. 바람: 탐라의 해양적 동력과 바람의 네트워크
- III. 해류: 쿠로시오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교섭
- IV. 해양력: 항해전문가로서의 성주에 관한 가설
- V. 맷음말: ‘육지에 팔린 섬’이 아니라  
북서태평양의 일원으로서의 제주

## 국문요약

‘탐라’와 ‘제주’는 자주 혼용·혼효되고 있다. 그러나 두 명칭을 굳이 병용함으로써, ‘탐라시대’와 ‘제주시대’의 장기지속적 관점이란 논지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그 명칭에 담겨진 차별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탐라’와 ‘제주’ 명칭은 그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계기적 연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탐라에서 제주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역사를 전체사로 이해하자면 통시적이고 구조적인 분석틀에 기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탐라’라는 섬의 역사는 아직 迷宮이다. 첫째, 당연한 주장이지만 섬은 본질적으로 ‘섬’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탐라의 해양력에 관한 실체이다. 탐라의 해양력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드물다. 여러 기사에서 탐라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입증할 수 있다. 기사에서는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일체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탐라의 해양력이 일정 수준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육지에 팔린 섬인가, 주체적인 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석좌교수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탐라의 해양적 동력과 바람의 네트워크, 쿠로시오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교섭, 항해전문가로서의 성주에 관한 가설 등을 사례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육지에 팔린 섬’이 아니라 북서태평양의 일원으로서 제주, 즉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해양문명사, 바람, 해류, 쿠로시오, 해양력, 성주(星主)

## I. 제주 해양사연구의 몇 가지 한계와 그 전제 조건

‘탐라’와 ‘제주’는 자주 혼용·혼효되고 있다. 그러나 두 명칭을 굳이 병용함으로써, ‘탐라시대’와 ‘제주시대’의 장기지속 관점이란 논지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그 명칭에 담겨진 차별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탐라’와 ‘제주’ 명칭은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계기적 연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탐라에서 제주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역사를 전체사로 이해하자면 통시적이고 구조적인 분석틀에 기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전체사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왕왕 도식화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매개 시기의 정치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닌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는 조건 속에서, 본 연구는 통시적·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탐라와 제주사를 해양문명사적으로 성찰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페르낭 브로델은 ‘지중해의 유구한 역사를 곁에서 지켜본 최고의 목격자는 바로 지중해일 것이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중해를 보고 또 보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어주는 것은 언제나 바다였다’고 덧붙였다.<sup>1)</sup> 그 표현을 제주바다에 그대로 비유한다면, ‘제주도의 유구한

역사를 곁에서 지켜본 최고의 목격자는 바로 제주바다일 것이다'로 직설적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바다는 '위대한 어머니'이다.<sup>2)</sup> 어머니는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현장을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바다의 역사는 대체로 유사무서(有史無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다의 침묵'만이 지속될 뿐이다. '제주바당'을 바라보면서, 육지중심이 아닌 해양문명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해군전략가 마샬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판단하면서, '역사 가는 대체로 바다의 사정에 어둡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영향에 관해 특별한 관심이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해양력(Maritime Strength)이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적이고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 넘겨왔다'고 서술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sup> 실제로 탐라 및 제주연구사는 섬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력이라는 관점이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온 실정이다. 마셜의 주장은 적어도 제주도연구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총괄해볼 때, '탐라'라는 섬의 역사는 아직 미궁(迷宮)이다. 해양문명사를 거론함에 있어 지중해식 모델을 자주 이론틀로 제시하지만, 동아시아 해양문명사에는 그다지 적합한 이론틀도 아니다. 문명과 문명의 십자로가 존재한 지중해적 상황과 달리 탐라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굳이 지중해와 비교한다면, 문명의 교차와 교섭관계 총량에서 탐라는 변방적 위치다. 변방이라는 표현은 고립무원

1) Fernand Braudel(1998), "LES-MEMORIES DE LA MEDITERRANEE", Paris,(강주현 역(2006), 『지중해의 기억』, 한길사, 37쪽).

2) Rachel Carson(1951), "The Sea Around Us"(이충호 역(2003), 『우리를 둘러싼 바다』, 양철북, 25쪽).

3) Alfred Thayer Mahan(1932),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Little, Brown and Company.

이라는 뜻은 아니다. 최소 1000km이상 격리된 폴리네시아조차도 해양을 통한 교섭이 부단없이 이루어졌기에 고립무원적인 섬은 인류 역사상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라의 해양사 자료가 제한적이며 역사적 실체보다 밝혀진 것이 훨씬 작다. 따라서 육지중심사관에서 해양문명사관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탐라 및 제주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라 및 제주사에 관한 복원을 의미할 것이다. 해양문명사적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주만의 특수 사정이 아니며 한국사 전반의 한계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사 자체가 육지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관점을 갖고 이루어진다.

첫째, 당연한 주장이지만 섬은 본질적으로 ‘섬’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점이다. 문헌에 따라 섭라(涉羅), 탐모라(耽牟羅), 담라(儋羅), 탁라(托羅) 등으로 불렸는데 역시 탐라가 널리 호칭되었음을 익히 알려져 있다. 탐라는 말 자체도 섬나라는 뜻이었다.<sup>4)</sup> 어떤 섬의 역사도 ‘관계’의 역사이다. 섬은 대웅하는 항포구와 항포구가 네트워크하면서 존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고대 탐라의 위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백제 문주왕(文周王)에게 탐라국에서 방물을 받친 기록이 있다(476년).<sup>5)</sup> 그러나 불과 20여 년도 채 안되어 탐라에서 공부(貢賦)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동성왕(東城王)이 친히 정발하여 무진주에 이르렀으나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죄를 청하므로 그만두었다(498년).<sup>6)</sup> 방물을 받치

4) 韓致淵, 『海東歷史』, “『후위서』에 섭라라 칭하였고, 『수서』에서는 담모라라 칭하였으며, 『당서』에서는 담라라 칭하였다. 또 탐부라, 탁라라 칭하였는데, 이는 모두 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방언에 도(島)를 섬(剝)이라 하고 국을 나라(羅羅)라고 하는데, ‘耽, 涉, 僧’세 음은 모두 섬과 음이 비슷하니, 대개 섬나라를 이르는 것이다.”

5) 『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條.

6)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條.

기도 했지만 공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이었다는 반증이다. 그랬던 탐라가 고구려 문자명왕(文咨明王) 시대에는(503년) ‘섬라가 백제에 병합되었다’고 하였다.<sup>7)</sup> 신라 문무왕(文武王) 시대에는(662년) 백제 속국으로 있던 탐라가 신라에 와서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기사 665년에 유인궤가 신라 사신과 백제, 탐라, 왜인의 네 나라 사신을 데리고 서쪽으로 돌아간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탐라의 상대적 독립성은 여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8)</sup> 문무왕이 679년에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다시금 경략(經略)한 것이라거나 애장왕(哀莊王) 시대에 탐라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게 한 기록이 다시 등장한다(801년).<sup>9)</sup> 이들 기사를 보면 탐라는 끊임없이 한반도를 오가고 있었다. 배를 띄우고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일정한 노하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라는 황룡사 9층탑을 세워 이웃나라가 침범하는 재앙을 진압하려 하였다. 각 층별로 담담국가가 정해졌다.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3층은 오월, 4층은 탁라, 그 밖에 말갈, 거란, 여진, 예맥 등을 진압하고자 했다. 『심국유사』의 기록으로 보건대, 탐라가 신라를 위협할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방 오지의 섬에서 해양력이 없다면 침범할 재간도 없었을 것이고, 신라를 위협하는 대상에 일본, 중국, 오월 다음으로 손꼽힐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육지의 삼국과 저항을 하건, 조공을 받치건, 탐라가 그럴만한 해양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탐라 관련 고대문헌은 위와 같이 백제, 신라, 고구려와의 관련 속에서 주어지고 있을 뿐, 탐라의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제한성을

7)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文咨明王條.

8)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條.

9) 『三國史記』新羅本紀 哀莊王條.

지닌다. 탐라의 해양력은 알려지거나 깊게 연구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기록 이전 시대의 실체는 고고학적 자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제주시 삼양동에는 기원전 3세기에 최초로 형성된 대규모 마을유적이 있다. 이 마을유적은 송국리 주거문화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 청동기후기 마지막 단계의 대단위 취락유적으로 간주된다.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다가 끝내 제주도에 정착한 것이라. 마을유적 안에는 크고 작은 움집, 창고, 저장공, 토기가마, 조리장소 뿐만 아니라 마을공간을 구획한 경계석축과 배수로, 그리고 폐기장, 폐총, 고인돌이 자리잡았다. 이 마을은 불평등한 계급사회를 반영하여 신분에 따른 거주지 배치가 달랐으며, 탐라국 형성기(B.C.200~A.D.200)의 사회모습을 보여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韓條)에 등장하는,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韓)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기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마을유적이다. 기원전 200년경에 제주시 한천변의 용담동유적, 외도천변의 외도동유적과 함께 가장 번창했던 3대 고대마을 중 하나로 탐라소국으로 가는 열쇄를 제공하는 읍락(邑落)이다.

이원진은 『탐라지(耽羅志)』에서, “처음에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는 형제 삼인이 그 땅에 나누어 살았는데, 그 거주하는 곳을 徒”라고 하였다. 오늘날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명칭에 그 ‘徒’를 남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항포구가 존재했다면, 이에 대응하는 상대편 항포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탐라국과 연결되던 한반도 본토 및 중국, 일본과의 항해 루트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는 불분명하다. 육지로부터 대거 제주도로 이입된 신진세력들의 항해 루트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단계이다. 항해 루트란 막연하게 오늘의 입장에서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항해루트가 존재해야 할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관계 등 제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당대 탐라의 인구와 섬의 인구압, 외래 이주민 등

에 관한 연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당대 탐라로의 항해루트를 그려낼 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다. ‘탐라인들의 해상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식의 상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sup>10)</sup> 그 상상을 담보할 구체적 자료들이 입증되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둘째, 탐라의 해양력에 관한 실체이다. 탐라의 해양력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드물다.『삼국유사』『삼국사기』와 동급의 『탐라국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잃어버린 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기사에서 탐라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입증할 수 있다. 기사에서는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일체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탐라의 해양력이 일정 수준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탐라시대의 고선박 등이 고고학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려 현종 3년에 탐라사람들이 와서 큰 배 두 척을 바쳤다.<sup>11)</sup> 큰 배를 진상할 정도라면 일정한 조선술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1058년(정종 12)에는 ‘백성들이 고기잡이와 배 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sup>12)</sup> 1260년(문종12) 기사에, “제주는 해외의 큰 진(巨鎮)이며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일정한 때 없이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3)</sup> 그 밖에도 다양한 기사에서 탐라의 해양력이 확인된다.

- 충렬왕 6년(1280). 배 3천척을 짓는데 탐라에 조치을 내려 재목을 징발하여 보급케 하였다.

10) 고용희(2006),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도서출판 각, 45쪽.

11) 『高麗史』顯宗 3년 8월 壬寅.

12) 『高麗史』靖宗 12년 8월 乙巳.

13) 『高麗史』元宗 원년 2월 更子.

- 충렬왕 7년(1281). 조칙을 내려 탐라에서 새로 만든 배를 홍다구에 주어 출정케 하였다.
- 충렬왕 11년(1285) 여름. 탐라에서 일본 정벌을 위해 만든 배 1백척을 고려에 하사하였다.

『탐라순력도』 「한라장축」(漢拏壯臘, 1720)에는 제주도는 물론이고 남해안 일대, 중국의 영파·소주·양주·산동, 일본과 유구, 심지어 베트남·말레이반도·태국이 명기되었다. 제주인의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출륙금지령으로 인하여 제주의 해양력이 극도로 억제되고 조선술 자체가 소멸되어갔다. 출륙금지령으로 인하여 배의 출륙 자체가 통제되어 내왕이 지극히 제한되자 자유로운 출륙에 따른 조선업의 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기가 근 2백여 년을 이어가게 되자 해양력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탐라 및 제주의 해양력은 장기지속적인 단절과 억압이라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간단계가 사라진 상태에서 역사적 복원력을 시도하지 않으면 본래의 해양력 규명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셋째, 육지에 떨린 섬인가, 주체적인 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문헌기록상으로는 대체로 육지에 떨린 섬, 즉 육지와 교섭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700여 년 전 인물인 고려의 이제현(1287~1367)은 생의 의욕을 상실한 탐라 농민들이 농사는 손들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배나 바라보면서 산다는 내용의 시 ‘望北風船子’를 이렇게 자평하였다.

탐라는 땅이 좁고 백성은 가난하다. 지난날에는 전라도 장사꾼이 와서 용기와 나락쌀을 팔아주었는데, 이제는 팔려오는 이가 드물었다. 지금은 관이나 개인이 기르는 우마가 들판을 덮었으니 밭갈이를 하지 않고, 오고가는 벼슬아치들만 베틀의 복처럼 잣아, 대접하기에 골몰하게 되니, 그것은 탐라

백성의 불행이어서 가끔 변이 생기는 것이다.<sup>14)</sup>

이제현의 시대에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관민의 목장으로 전락하였으며 경래관의 착취가 일상화되었다. 700여 년 전의 기록은 조선후기까지 장기지속적이다. 삼다(三多)에 더하여 삼재(三災)의 섬으로 수재·한재·풍재가 겹쳐서 흉년이 이어졌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제주민의 역사적 DNA 안에는 본능적으로 중앙의 물엄치에 가까운 수탈을 저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숨어있다. 그 본능적 저항은 ‘육지 것’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그런데 ‘육지 것’에 의한 거역의 역사는 비단 제주도만이 그러 할까. 대체적으로 섬의 역사가 그리하였다. 대만의 원주민, 오키나와의 원주민 등 섬의 역사는 이른바 본토에 의한 배반의 역사인 경우가 허다하다. 섬에서는 육지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육지에서는 섬에 대한 철저한 타자화가 장기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본토 입장에서 제주도를 타자화해 온 역사는 본토의 위임을 받은 경래관의 토색질을 통해 발현되었다. 토색질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장수가 등장하였다. 장수들, 즉 반란자들이 각 시대마다 운명처럼 등장하였다가 그야말로 운명처럼 사라지곤 하였다. 장수가 계기적으로 출현하였음은 제주도 역사 자체가 고단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의 보편적 대립과 불평등구조를 뛰어넘어 본토—탐라는 역사적 대립과 차별을 내포한 측면이 민란의 바탕을 이루었다. 19세기의 제주민란에서 끊임없이 ‘제주독립’이 슬로건에 포함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쯤에서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제주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변방의 섬인가? 허남린은 제주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역사적 위상을 지적한 바 있다.

14) 『益齋亂藁』 小樂府.

하나는 중앙권력에서 바라보는 변경에 위치한 페리퍼리(*periphery*)로서의 제주도, 다른 하나는 일본 등 외국과의 최선단 접촉점에 서있는 프론티어로서의 제주도이다. 페리퍼리와 프론티어라는 상반된 제주도의 역사적 위상은 중앙의 일방적 지배구조, 이에 대처하는 제주도민의 주체적 삶의 방식이 빚어낸 역사적 유산으로, 오늘날에도 그 유산은 갈등을 안은 채 지속되고 있다.<sup>15)</sup>

육지인의 제주도관은 ‘문명과 야만’의 척도였다. 제주도 전통이 중앙의 풍속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문화의 프론티어로서 제주도를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였다. 그럼에도 그러한 지표는 중앙의 관점에서는 부정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다르고 이상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변경의 문화’에 대한 부정적 규정은 프론티어의 대극점에 위치한 ‘중앙’의 자기중심적 시선의 폭력성에 기초한다. 제주도를 ‘별나고 야만스런 풍속, 어리석은 백성’이라 인식하는 본토의 관료 및 지식인의 제주도관은 곧 제주민에 대한 교화(教化) 의지로 표현되었다. 조선이 망하는 순간까지 제주도는 중앙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어디까지나 중앙문화에 대비되는 특이한 습속의 문화변경지대였다. 특이한 습속은 제주문화의 개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징표였지만, 조선의 중앙에 있어 이러한 제주도의 문화적 생명력을 내지 주체성은 단지 부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육지에 떨린 섬으로서의 탐라 및 제주연구가 아니라 바다로 나아간 전진적 형태로서의 연구사적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넷째, 북서태평양 도서의 지정학적 분포와 관련된 제주도의 각별한 해양적 위상이다. 대체로 제주 남쪽에 걸쳐있는 큰 섬으로는 역시 타이완과 오키나와군도를 꼽는다. 그런데 푸젠성으로부터 평후열도를 거쳐

15) 허남린(1994), 「제주도의 역사적 토포스-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탐라문화연구』 14집, 탐라문화연구소.

타이완, 다시금 오키나와 군도를 거쳐서 아마미오시마, 그리고 큐슈 남부에 이르는 거대한 섬들의 체인이 형성되어있다. 중국, 일본, 오키나와, 타이완의 연계고리는 섬들의 체인이라는 측면으로 인지되며, 오늘날 중국이 해양방어상의 목적으로 제1도련(島連)이라 부르는 섬의 체인과 일치한다. 반면에 제주도는 이들 체인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섬이며, 구도에 있어서도 각별하다. 이 특수한 위치 내에서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왔다.

제주도는 자연적, 인간적, 물질적 교섭관계를 통하여 남방 해역과 충실했던 관계를 가져왔다. 쿠로시오 해류를 통한 남방의 자연적, 인간적, 물질적 교류는 해양문명사적으로 볼 때 흥미로운 대목이다. 대체로 제주도의 남방과의 연계는 섬들의 체인이라고 하는, 푸젠성으로부터 평후열도, 타이완, 오키나와군도, 큐슈 등으로 이어졌다. 표류는 대표적 사례이다. 21세기의 해양과학기술이 이룩한 해류를 통한 표류, 표착의 사례와 쓰레기 이동경로 추적 결과는 과거 역사적 표류, 표착의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 비정상적 항로와 항해라고 할 수 있는 표류는 제주도와 남방 해역과의 연관성을 입증시킨다. 표류는 심지어 베트남과의 교섭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철새 같은 동물과 문주란 같은 식물의 이동, 돼지고기문화권의 분포 같은 남방과의 교섭관계도 해양문명사적으로 주목된다.

## II. 바람 : 탐라의 해양적 동력과 바람의 네트워크

해양문명은 그야말로 ‘바람의 길’이다.<sup>16)</sup> 바람이 없다면 문명 간 교섭

16) Patrick Vinton Kirch(2000), *On the Road of the Winds*, University of

이 불가하였을 것이다. 풍력의 시대에 바람이 없었던 대항해가 불가하였으며 자연과 문명의 씨앗을 실어 나르지 못하였을 것이란 결론이다. 멜라네시아에서 폴리네시아, 다시금 미크로네시아, 심지어 이스터섬에 이르는 장대한 대항해의 역사도 바람의 길 그 자체였다. 태평양문명만 그러한가? 인도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슬람문명 역시 바람을 타고 온 다우선에 의한 것이다. 몬순을 타고서 아라비아해에서 동남아시아로 중동 및 서방의 문명이, 반대로 동방의 문명이 서방으로 전파된 것이다.<sup>17)</sup>

제주의 성립과 변화의 동력 역시 바람이었다. 한반도에서 제주도만큼 바람의 길에 절대적 운명을 걸은 바다 공간이 또 있을까 싶다. 물론 육지부의 그 어떤 항로로 바람 없이는 불가하였다. 그러나 바람이 불러온 문명교류와 전파의 강도에서 제주도를 능가할 수 없다. 제주도 역사의 동력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이 바탕을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sup>18)</sup> 본 항에서는 서복(徐福)의 동정(東征), 바람의 신인 영등과 마조, 동아시아의 표류 등을 그 적실한 예로써 고구하고자 한다.

### 1. 서복의 동정과 관련하여

서복의 동정은 탐라의 고대적 해양네트워크를 암시한다. 서복이 서귀포를 거쳐 갔다고 믿는 학자들은 정방폭포의 서복과지(徐福過之) 글자를 근거로 단주(亶洲)를 제주도라 주장한다. 사정은 이러하다. 서복은 서불(徐市)의 이름으로도 나타나며 제나라 출신으로 진나라의 방사(方

Califonia Press, Berkeley.

17) Badrane Benlahctne(2005), *The Message in the Malay World, The Message & The Minsoon*, The Islamic Arts Museum, Kuala Lumpur, pp.34-39.

18) 주강현(2011), 『제주기행』, 용진지식하우스, 10-37쪽.

士)로 일했다. 천하통일한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한 불로초를 구하려 사방으로 신하를 보냈으나 끝내 구해오지 못했다. 서복은 자기가 영약을 구하러 가야 할 차례임을 알고 진시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저 멀리 바다 건너 蓬萊, 方丈, 瀛洲의 三神山에 신선이 사는데, 동남동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에 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동남동녀 수천을 뽑아 그에게 주고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다.<sup>19)</sup>

그리하여 기원전 219년에서 210년 사이에 서복의 두 번에 걸친 여행이 시작된다. 그의 행적은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폭넓게 이어진다. 60척의 배와 5,000명의 일행, 3,000명의 동남동녀, 각기 다른 분야의 장인이 동반했다. 그는 진황도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중국을 떠나 단주 또는 이주(夷洲)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이주는 타이완, 단주는 일본을 가리킨다. 행로에 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서복의 주력은 일본으로 향하였고 그 일부가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에 당도하였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입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sup>20)</sup> 논픽션에 가까운 항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선단이 동진하여 대항해를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서복이야기는 중국, 제주도, 일본을 잇는 고대의 해양루트가 존재하였음을 암시한다.<sup>21)</sup>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주도는 변방이 아니라 고대적 해양세계의 징검다리였다고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19) 『史記』秦始皇本紀.

20) 경남 남해에 徐市過之 마애령(일명 남해 양아리석각)이 서복의 통과 사실을 전해주 는 진품일 뿐 서귀포 정방폭포의 것은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양아리석각도 고대문자가 아니라 천문적인 각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서복 을 들러싼 논쟁은 아직 미해결이다.

21) 서복의 동정에 관한 여러 견해에 관해서는, 『제주도연구』 제21집(2002) 특집을 참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섬에 대해 고립, 격절 등의 어휘를 구사한다. 이런 언어관념 자체가 육지중심적 사고다. 제주도를 '절해의 고도'로 간주하면서 머나먼 고립된 섬으로만 치부해온 역사관은 바람이 부여하는 역사 동력의 힘을 간과하곤 한다. 제주도와 육지는 항해자가 서로 눈으로 목격 가능한 시인(視認)이므로 절해고도란 표현은 문학적 수사로는 적합하나 해양사적 측면에서는 부적당한 용어다.

『당회요(唐會要)』에 탐라의 조공사신이 당나라에 이르렀다고 하였다.<sup>22)</sup> 바람 없이는 직접 당나라에 이르는 뱃길이 불가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과 『후한서』동이전에 보이는 주호국은 이미 A.D.3세기에 탐라국이 존재하였음을 설명한다. 제주시 산지항 축조공사 중에 출토된 거울, 동전 같은 유물, 용담동 무덤의 장검과 단검, 주조 도끼 등은 주호국(탐라국)이 한과 교역한 근거이다. 산지항 근처의 촌락사회가 한과 대외교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제주시에서 촌락사회(제일도, 혹은 제이도)가 제주도 동남부세력과 통합되어 탐라소국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신창리에서 물질하던 해녀들이 금불이를 발견하였다. 놀라운 발견이었고, 수습된 유물은 제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금팔찌, 금제 뒤꽂이 등 꾸미개와 중국 청자가 우연히 해녀들 눈에 띠었다. 오랜 세월 깊은 바다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드러났다. 난파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주가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무역로였음을 알려주는 해저유적이다. 다른 제주해역에도 이 같은 난파선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며, 수중 고고학의 성과에 힘입어 몰랐던 해저자료들이 출현한 가능성성이 있다.

상고탐라(上古耽羅)를 고려함에 있어서, 한반도 중심 시각보다는 그

---

22) 王溥, 『唐會要』 耽羅國條.

단위를 동아시아 또는 동지나해양문화권으로 잡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있다. 동아시아 해상교류에서 해풍, 특히 계절풍 이용과 해안이동방법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정진술의 ‘고고학계에서 일 반적으로 인식된 해류를 이용한 선사시대 해상교류론은 그 실상이 전혀 다르며, 오히려 바람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sup>23)</sup>

## 2. 바람신 영등과 마조와 관련하여

구전역사와 신화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때로는 역사로서, 때로는 신화 그 자체로서 상호 결합하면서 후대인들의 생각과 사고틀을 규정해왔다.<sup>24)</sup>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2개의 대표적 바람신도 바다사람들의 생각과 사고틀을 규정한다. 중국 강남에서 시작된 마조신앙과 제주도의 영등신이 그것이다. 중국 본토의 바닷가사람과 대만인은 마조(媽祖)에 열광적이다 못해 마조 없이는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본디 마조여신을 상징하던 마카오 마조신당에도 배 그림을 그려놓고 풍우순조를 기원한다. 마조는 홋날 국가적 제사와 여신의 반열에 올라서지만 그 뿐리는 오랜 중국 남동부의 고대적 민간신앙에서 출발하였다. 융합과 통제, 국가권력의 개입 등을 거치면서 마조는 다양한 성격으로 확대발전 하였다. 『표해록』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대저 해마다 정월이 되면 바로 대단한 추위의 막바지에 해당되는데 매서

23) 정진술(1992), 「한국선사시대 해사이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2집, 141-222쪽.

24) 주강현(2010), 「환태평양 화산권역의 섬과 신화의 탄생; 폴리네시안 대항해와 화산 섬을 통한 여신의 탄생의 경우」, 『설문대활망과 바다』(탐라문화연구소 자료집).

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커다란 파도가 우레처럼 몰아치니 배 타는 사람들  
이 항해를 꺼립니다. 이월이 되면 점차 바람이 누그러지는데 제주 풍속에  
는 오히려 영등절이라고 부르면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중국  
강남사람 또한 정월에 바다에 나가지 않고 4월이 되어 梅雨(매화꽃 필무렵)  
양자강 유역에 내리는 비)지나고 시원하게 맑은 바람이 불면 이 바람과 함  
께 바다를 항해하는 오랑캐 배가 처음 들어오며 이를 박초바람이라고 부릅  
니다.<sup>25)</sup>

바람신인 제주 영등신과 중국 마조신을 병기하고 있다. 최부의 목격담  
은 중국 마조와 제주 영등에 관한 비교문화사적 관찰로 받아들여도 무방  
할 것이다. 육지에서 대체로 사라진 영등굿이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완강  
하게 이어지는 중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거느리고 온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의 전통, 특히 바람을 상징하는 풍백 전통이 제주  
도에서는 아직도 전승된다. 영등신은 내방신으로 어부의 어획물 풍요나  
해녀의 잡수를 도와준다. 영등할망 음력 없이는 도대체가 농사고 어업이  
고 되는 일이 없다. 이런 권력이 없다. 전지전능한 바람신이다. 오늘날에  
는 어부와 잡녀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지만, 앞의 최부 기록에서 보여지  
듯 항해의 신으로도 모셔졌을 것이다. 현행 민속은 제주도의 해양력이  
출륙금지령 등으로 축소·동결된 결과물이며, 과거에는 영등신이 항해  
의 신 역할을 겸하였을 것이다. 현행 민속의 분포와 성격만 가지고 영등  
신의 전 역사적 과정을 규정함은 잘못된 것이다.

---

25) 최부, 『漂海錄』.

### 3. 표류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해류에 의한 것으로 믿어져온 표류조차도 사실은 바람의 힘이 더 강하게 미친다. 쿠로시오 해류가 북상하는데도 많은 이들이 역행하여 남쪽으로 표류하였다. 조난선의 외력은 바람, 파도, 조류, 해류로 대별되는데, 대체적으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크다. 파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놀 같은 혐약한 파도도 있어 조난선을 끝없이 밀어낸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표류사건의 개략적 양상을 검토해보면, 무수한 사람이 대만과 오키나와, 필리핀 등으로 표류한 사실에서 태평양 해양세계와 제주인이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표류기 분석에서 표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육지를 통한 귀환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귀환에는 그다지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있다. 비일상적 표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해양루트를 통하여 다시금 정상적인 항해가 이루어져서 귀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표류와 항해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1687년(숙종 13) 고상영은 멀리 안남에 표류하였다가 5년 만에 생환하였고, 1689년(숙종 15)은 김대황이 안남에 표류하였다가 복주 상선편에 귀환하였다. 김대황이 귀환할 때 중국을 거치지 않고 안남에서 서귀포로 곧바로 돌아왔음은 베트남—제주도 간의 국제 해상루트가 이미 개척되어있다는 좋은 증거다. 김대황의 베트남으로부터의 귀환은 전적으로 뜻배의 바람을 이용한 항해의 결과물이다.

『폐관잡기』에 이르길, 1548년에 김만현 등 제주민 64인이 영파부에 표류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두 번째 표류되어온 자가 대여섯 사람이었다. 김만현은 “만약 네댓 말의 쌀과 몇 동이의 물만 있으면 비록 태풍을 만나더라도 며칠 안에 영파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무슨 걱정이 있겠

는가?”라고 하였다. 제주의 고한록은 중국에 표류하여 많은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 그 후로 그는 사람들에게 표류를 권하였다. 이에 몰래 마른 양식을 가지고 순풍을 기다리지 않고 닻을 끊고 키를 버리고 고의로 표류한 것이 세 차례이며, 익사한 사람도 무수히 많았다. 현종조에 이원달 목사가 이 소문을 듣고 고한록을 체포하여 목을 베었다고 하였다. 표류를 ‘직업적’으로 행하던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뜻이다. 바람을 적절하게 이용한 직업적 항해기들이 존재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다.

### III. 해류 : 쿠로시오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교섭

마르크 블로흐가 밀한 ‘기원의 우상숭배’라는 용어가 있다. 제주도가 본토보다 후진적이고 오로지 본토로부터 선진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만 함이 여기에 해당된다. 모든 기원은 오로지 북쪽의 본토에서 비롯된 것일까. 혹시나 남쪽에서 들어온 것은 없을까. 남쪽에서 훌러오는 해류를 포함한 해양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원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하지 않을까. 일방통행은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 물마루는 잡자는 수평선이 아니다. 거대한 파도를 일구며 쿠로시오 해류가 치고 올라오는 용트림치는 바다이기도 하다. 한 겨울에 제주도와 일본 큐슈, 나아가 유통도·독도근해까지 넓게 난류가 물들인다. 물마루에 걸쳐있는 쿠로시오 해류가 결코 조용히 쉬고 있는 바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쿠로시오의 원류는 북적도(北赤道) 해류. 대만 동쪽으로부터 오키나와제도, 아마미(奄美)제도로 북상하여 가고시마(鹿兒島) 아래에서 동한 난류와 갈라진다. 아랫가닥은 동쪽으로 향하여 시코쿠(四國)로 향하며, 윗가닥은 제주도와 남해안은 물론이고 서해·동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 앞바다의 대륙붕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올라간 쿠로시오 해류는 오헤츠크해와 베링해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오야시오 해류와 만나 대륙에서 멀어진다.<sup>26)</sup> 마치 북대서양에서 멕시코만류와 래브라도 해류가 만나는 곳에 자욱한 안개가 끼듯이,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도 안개와 폭풍이 물이치는 지역에서 만난다. 동아시아 변방에 위치하고, 북서태평양 북서단에 자리잡아 변변한 해류가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쿠로시오해류의 영향력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쿠로시오해류의 영향력은 인적 교류보다는 자연적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쿠로시오 해류는 이미 중국 문헌『장자(莊子)』에 미려(尾閭)로 등장한다.<sup>27)</sup> 그런데 고대인들은 쿠로시오 해류를 무서운 곳, 즉 사람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이해하였다. 쿠로시오 해류에 대한 두려움과 동지나해 수평선 너머에 대한 공포감이 엿보인다.<sup>28)</sup> 해양 세계에 대한 고대적 두려움과 외경심이 극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고대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대규모 선단이 북상하는 그런 일은 실제로는 드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쪽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특성상 남방의 동식물이 북상하는 통로가 되었다.

해양을 통한 동식물 이동은 해양생태전략에서 매우 결정적 요소이며, 풍토와 생활사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제주풍토와 제주생활사에서 동식물의 이동결과가 미친 파장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대체로 해양 연구에서 동식물은 배제하고 인간만의 교섭을 강조함은 섬 연구의 일반 원칙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쿠로시오 해류권역의 산호초는 서귀포의 문섬이나 쇠섬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대마도근해, 심지어 태안반도 근해

26) 茶圓正明・市川 洋(2005), 『黒潮』(かごしま文庫71), 春庭堂出版, 鹿兒島市.

27) 『莊子』 제17편 秋水篇.

28) 정진술(1992), 앞 논문, 167쪽.

에도 산호초가 일부 발견되는데 이 역시 쿠로시오 영향이다. 세상에는 길도 많다. 길은 육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닷길이 중요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인간만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가져온 문화적 영향을 주목할 일이다. 제주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 쿠로시오가 가져온 자연과 문명의 선물들을 ‘쿠로시오로드’라 명명할 수 있다.

### 쿠로시오로드 1. 남방식물

문주란은 당연히 자생식물이 아니다. 해류를 따라서 북상한 씨앗이 정착하여 집단적으로 개체수를 늘려온 것이며, 제주도는 문주란 북방한 계선이다. 왜 남쪽에서 올라온 문주란이 서귀포 쪽이 아니라 북제주군 하도리에 정착하였을까. 토끼섬이 모래섬이라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적합하다는 서식 조건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류가 남쪽에서 올라와 제주도를 등그렇게 싸고들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표선에서 물에 빠진 시신은 반드시 들고 돌아 북제주군에서 발견되는 식이다. 해류의 힘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이다. 북제주 광령의 선인장자생지나 서귀포 보목의 선인장자생지도 해류이동의 결과물이다. 삼성혈을 둘러싼 녹나무는 중국 남부와 큐슈 일대에 널리 분포된 아열대성 식물이다.

### 쿠로시오로드 2. 남방어류

서해안이 새우젓문화권이라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멸치젓(멜젓)문화권이다. 제주생활사에서 멀은 돈과 더불어 빼질 수 없는 남방어종이다. 순환 어종 중에서는 남방계열의 등 푸른 생선류도 중요하다. 남해안으로

복상하는 삼치, 모슬포 연근해의 고등어도 쿠로시오를 타고 올라온다. 일본인이 ‘아지’란 명칭으로 선호하는 ‘전갱이’를 제주사람은 ‘각재기’라 부르며 횟감으로 즐겨 먹곤 하는데, 이 역시 남방어류이다. 방어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북쪽으로, 가을에서 겨울에는 남쪽으로 남북회유를 거듭 한다. 방어는 난류를 따라서 함경도까지도 진출한다. 5월부터 세력을 확장한 난류는 12월 정도에 세력이 약해진다. 12월이 지나면 일본 쪽으로 빠져서 태평양으로 나가버린다. 이때쯤 모슬포에 방어가 얼굴을 들이미는데 기름기가 올라 맛이 절정에 오른다. 남해안은 물론이고 동해안으로 도 쿠로시오 난류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남방어류 방어가 출몰하는 것이다. 방어만 그러한가. 오키나와로부터 제주도 근해, 한반도 서해안과 동해안이 모두 고래 본거지였다. 귀신고래같이 오헤초크에서 내려오는 북방고래도 있지만 수많은 고래들이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일본 사이의 물목에서 잡혔다. 큐슈의 생월도(生月島)나 야마구치(山口)의 청해도(青海島)에 본거지를 둔 서일본의 고래잡이 선단이 엄청난 양을 잡아들였다<sup>29)</sup>. 쿠로시오해류는 태평양 고래들이 올라오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 쿠로시오로드 3. 돼지문화

태평양사람들은 단백질을 어디서 얻을까.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의 문화유물론을 인정한다면<sup>30)</sup> 단백질을 공급받는 문제는 원초적 삶에서 중요하다. 태평양에서 물고기를 제외한 동물성 단백질원인 기축은 돼지를 제외하고는 대개 서구인들에 의해 수입된 것들이다. 태평

29) 鳥巣京一(1993), 『西海捕鯨業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30) Marvin Harris, (1992), *Cows, Pigs, Wars and Witches : The Riddles of Culture*(서진영 역,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양에서 소와 말과 양은 본디 없던 동물이다. 서구인의 손으로 전파된 소·말·양고기는 원주민들에게 인기가 덜하거나 거의 먹지 않았다. 동남아의 경우, 黑牛가 추가되는 정도이다. 필자가 2006년 조사한 미크로네시아 폰페이의 경우, 돼지를 원주민들은 피크(pwihk)라 부르는데 초기 기록에 등장하며, 폰페이에서 가장 존중받는 동물이다.<sup>31)</sup> 돼지는 전통축제에서 신분적 상징이자 경제적 지표이다. 생일이나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전통적 지도자에게 받쳐지는 카마덮(Kamadipw) 축제에서 돼지를 잡지 않고는 모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주식로 따지면 ‘돗추렴’이다. ‘돼지와 사카오, 암’, 이를 3가지만 있으면 부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북마리아나제도는 물론이고 오키나와제도도 모두 돼지고기 문화권이다. 제주도도 돼지고기 문화권이다. 예전에 제주도에는 멧돼지가 많았으며 선사유적에서도 멧돼지뼈가 발굴되었다. 오늘날도 제주도는 돼지고기요리가 유명하다. 제주사람들이 즐겨 먹는 ‘돔베국수’와 오키나와 국수에 똑같이 돼지고기가 올라 있다. 미크로네시아로부터 북마리아나제도, 오키나와제도, 그리고 제주도에 이르는 광대한 태평양문화권이 돼지고기문화권이기도 한 것이다. 환태평양에 드넓게 펴져있던 돼지고기문화의 강력한 보루 중의 하나가 제주도다. 돼지와 더불어 검정색(黑牛)도 중요하다. 지금은 흑우가 사라져서 종축장의 번식용만 정책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흑우가 제주도에서 상당수 있었다. 흑우는 두말할 것 없이 남방소다. 이 역시 쿠로시오 루트의 한 가닥이다.

#### 쿠로시오로드 4. 해녀

제주문화를 상징하는 해녀도 원래 쿠로시오권역의 문화이다. 중국 고

31) 주강현(2008), 『적도의 침묵』, 김영사, 638쪽.

대사에 월인 또는 百越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고대 민족이 오늘날의 베트남이나 타이족의 먼 조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월인이 고대 중국의 장강 하구 평야와 민(閩, 지금의 푸젠성) 땅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문화를 이룩하였음도 고대아시아사의 공인된 사실이다. 또한 그들이 잠수어법을 가지고 있었음도 고대 아시아사의 공인된 사실이다. 잠수어법은 월인만의 문화가 아니다. 필리핀을 포함한 남아시아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 행해진다. 잠수어법은 중국 남부, 필리핀, 오키나와, 큐슈, 세도나이카에 이르는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진다. 더 나아가서 여성에 의한 잠수어법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여성참여가 현저한 예로 제주도와 일본의 해녀어업을 꼽을 수 있지만, 해녀는 사실 남방에 널리 퍼져 있는 남방식 어로문화이다. 예를 들면, 솔로몬제도에서는 여성들이 소규모 뉘시어업과 함께 잠수에 의한 조개잡이를 한다.<sup>32)</sup>

### 쿠로시오로드 5. 돌살

돌살은 조간대에 돌을 쌓아 만든 전통어법이다.<sup>33)</sup> 돌살은 조수간만의 차이, 즉 조차(潮差)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조수간만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의 갯벌과 바다 생태계에 대한 인지체계는 대단히 체계적이다. 그네들의 민속지식(Folk-knowledge)이 오랜 세월의 경험, 그 경험의 축적과 전승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조석에 대한 어민들의 인지는 ‘물때’라는 상징체계로 나타난다. 돌살은 물때를 전제로 하여 성립

32) 秋道智彌(2005), *Maritime Peoples of the Pacific An Anthropological Study*(이선애 역, 『해양인류학; 해양의 박물학자들』, 민속원, 176쪽).

33) 朱剛玄(2006), 『돌살 - 신이 내린 황금그물』, 들녘.

되는 어법이며, 돌살의 현주소도 조간대이다. 따라서 돌살은 물때를 맞추지 않고는 볼 수 없다. 물 밑에 숨겨진 비밀처럼 간직되어 있다가 날물에 제 모습을 드러낸다.<sup>34)</sup> 조석에 의해 하루 두 번 드러나는, 조간대에 의지하면서 이루어지는 돌살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오래된 조석이용 어법이다.<sup>35)</sup> 돌살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특히 태평양권역에 보편적인 어법이다. 중국의 평후열도로부터 오키나와, 아마미오시마, 큐슈, 그리고 한반도 서해안과 남서해안 일부, 특히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분포된다. 같은 돌살도 서해와 제주도가 다르며, 한반도와 태평양의 것이 다르다. 그런데 다르면서도 같기도 하여 각이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자라난 문화들 가운데서 문화적 친연성이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제주도에서 돌살은 절대적 위치다. 제주 해안가 곳곳에 돌이 지천이다. 참고로, 제주도의 암석해안은 총길이 229.7km로 제주 전체해안의 무려 75%를 차지한다.<sup>36)</sup> 제주에서는 돌살을 ‘원’이나 ‘개’ 등으로 부르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원(垣)이 쓰이고 있는 바, 이 역시 바다에 두른 돌담이라는 뜻이니 같은 뜻이다. 제주도에 원담이 발달한 것은 용암바위로 인하여 바닷가가 그물질에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이원진이 일찍이 지적한 대로,<sup>37)</sup> 제주도는 ‘산과 바다는 험악하니 그물을 쓸 수가 없어 고기는 낚고 물짐승은 쏘이잡는다(山險海惡 不用網罟 魚則釣 獸則射)’고 하였다. 원이나 개에서 잡아들이는 멸치 등의 어획량은 양도 양이지만 손쉽

34) 이기복(2003), 「潮汐·潮間帶와 어업생산풍습」, 『역사민속학』 16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93쪽.

35) Andres von Brandt(1971), *Fish Catching Methods of the World*, Fishing News Books Ltd., England.

36) 김태호(1997),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381-391쪽.

37) 『耽羅志』.

게 가히 ‘채취’에 가깝게 잡아들일 수 있어 제주민에게는 절대적으로 요긴한 들그물인 셈이다.

문화형성을 문화전파의 결과물로만 국한하여 보는 편협된 전파론적 해석은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해류를 통한 동식물 이동 및 문화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편협된 시각도 곤란하다. 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한국-오키나와의 조개제품을 통한 ‘선사시대 문화의 재발견’ 기획전시가 이루어졌다. 한반도와 일본 본토, 제주와 일본 본토, 한반도 와 오키나와, 제주와 오키나와 간의 다면적 네트워크가 확인되었다. 5세기에 이미 한국 남부에 오키나와산으로 보이는 고후우라제 팔찌가 전해 졌음이 밝혀졌다.<sup>38)</sup> 시각을 타이완과 필리핀으로 넓힌다면 해양교류의 네트워크는 한결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를 태평양의 일원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은 대단히 일천했으며, 구두로만 논의되어 온 실정이다. 같은 일본만 해도 류큐국을 포함한 남방적 요소가 강력하게 존재하며, 중국도 남중국을 중심으로 남방적 요소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타이완과 오키나와를 예로 든다면, 이들 섬들은 쿠로시오해류권에 위치하여 아열대성 해양문화를 간직한다. 한반도에서도 제주도는 유일하게 준 아열대성 해양기후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생태가 적도권 북서태평양 생태계<sup>39)</sup>와 여러 측면에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38) 安里嗣淳(2005), 「沖繩先史時代の貝文化」, 『선사시대 문화의 재발견』, 국립제주박물관, 219쪽.

39) Christopher S.Lobban and Maria Scheffer(1997), *Tropical Pacific Island Environments*, University of Guam Press, Guam

#### IV. 해양력 : 항해전문가로서의 성주에 관한 가설

탐라 및 제주의 해양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매개고리는 성주일 것이다. 성주라는 직책의 해명은 제주해양사의 선결파제이기 때문이다. 성주왕자 칭호를 가진 부류들이 삼국시대부터 쭉 나오는 것으로 보아 탐라왕국이 나름 대외활동을 전개하면서 존립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주왕자는 누구일까. 성주는 938년(고려 태조 21) 성주왕자란 벼슬을 주었다는 기사에서 비로소 등장한다.<sup>40)</sup> 대체적으로 성주란 고려 태조 21년 이후에 제주도 수령에게 붙여진 명칭이며, 1404년(조선 태종 4) 성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무려 466년이나 계속 용인되었다.『고려사』에 자주 등장하는, 성주-왕자라 칭하는 탐라지배층은 고려정부로부터 본도 내의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성주충은 고려왕조로부터 받은 지위 이외에 도내 평민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어떤 정신적-고차적 권위가 필요했을 것이다. 성주충이 자기들이 신인의 후손이며 신성한 족속이라 하며 섬 안에서 그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권위를 세우는데 삼성신화의 윤색이 필요했다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탐라성주+신인 후손설’이 본도에 널리 유포되었다고 본다.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샤만의 노래를 고씨 성주들이 어느 시기에 자기들의 조상이야기로 대치하였다. 탐라국 성주들은 항해를 위한 전문지식을 담당하던 제주도의 왕족으로써, 태평양 제도에서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세습추장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들은 항해를 위해 별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항해술을 특정 가문을 통해 세습시키고 있었다. 탐라 성주충의 해양성과 어떤 문화적인 친연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이 별과 항해의 주인, 즉 성주(星主)로 불리웠을 것이다.<sup>41)</sup>

40) 『高麗史』 太祖條.

진영일은 하나의 가설로 ‘성주-전문적 항해기술자’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태평양 일원에서 정치적·제사적 권력이 전문적 항해기술을 장악한 이에게 주어짐은 매우 보편적인 상식이다. 관측소에 해당하는 성벽에 올라앉아 한 사내가 별을 관측하는 하와이의 오랜 역사를 담은 그림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하와이왕국의 역사에서 대항해기는 별을 관측하는 사람의 뜻이었으며, 그는 성주에 준하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sup>42)</sup>

전통적으로 원양항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가까운 연안을 따라가며 육지나 섬의 일정한 표식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면서 항해하는 연안항해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항해법이며, 산봉우리 등을 표식으로 삼는 가늠법이다. 가늠은 현재도 어선 등에 의해 유력한 조업방식의 하나로 채택된다. 그러나 대양을 가로지르는 대항해에서 가늠은 무용지물이다. 구름이 모여 있는 곳 아래에 섬이 있다거나 새들이 나르는 방향을 보아 육지를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가장 정확한 표식은 별이다. 선인들은 전통지식에 의거하여 해당 별자리 아래에 정확히 떨어진 곳에 찾아가는 목표들이 있었음을 인지하였다. 폴리네시아의 경우, 항해를 며칠 때 가고자 하는 방향의 첫 번째 가장 빛나는 별을 정해놓고 출항하였다. 수평선 쪽으로 항해하면 별은 가라앉고 그 뒤쪽의 다른 빛나는 별이 다시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항해하다가 그 별이 항해자의 천정 위에 당도하였을 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가들은 대체로 150개 이상의 별자리와 명칭을 알고 있었으며, 그 별들의 계절별 시간별 움직임을 파악하는 전통지식을

41) 진영일(2005), 「고려시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집, 탐라문화연구소, 48쪽.

42) Herb Kawainui Kane(1997), *Ancient Hawai'i*, Kawainui Press, Honolulu, pp.20-24.

지니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지중해의 좁은 유타리 내에 머물고 있을 때, 폴리네시안들은 이미 수천km를 항해하면서 새로운 섬들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나가고 있었다.<sup>43)</sup> 미크로네시아의 항해법은 연구한 아키미치 도모야의 연구에 따르면, 그네들은 방위를 체계적으로 아는 독자적인 별자리 콤파스도 갖고 있었다.<sup>44)</sup>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대, 탐라인들이 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일본과 교섭하기 위해서는 조선술은 물론이고 별을 보는 뛰어난 항해술을 지니고 있어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탐라의 성주가 별자리를 이해하는 항해전문지식을 장악한 전문가였을 것이란 가설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성주를 별자리와 직결시키는 데는 역시 해결해야 할 논리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다. 고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중간단계이론의 부족 때문이다. 섬이라는 본질적 조건, 원양 항해를 해야지만 유지되는 섬나라의 특성, 대항해 노하우를 지닌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했을 가능성, 성주라는 이름에서 ‘星’이 함의하는 바 등을 두루 종합할 때 성주를 항해전문세력으로 결론내림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중간단계이론이 부족하다. 왜 항해에서의 별자리 전통이 구술로라도 전해오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과연 일본과 중국으로 오가던 항해전통이 기사에 충분히 등장하지만 항해 전문성에 관한 기록은 물론이고 구술전통도 없다. 문제는 유사무서(有史無書)이며, 구슬전통과 항해술 자체가 200여 년 이상에 걸친 출륙금지령으로 말미암아 소실되었을 가능성이다. 200년이란 장기간의 축력금지가 가져온 결과로 정리되겠지만, 여전히 중간단계이론의 부족을 추후 과제로

43) Handy, Emory, Bryan, Buck, Wise and Others(1999), *ANCIENT HAWAIIAN CIVILIZATION*, Mutual Publishing, Honolulu, pp.237-245.

44) 秋道智彌, 앞의 책, 77쪽.

남겨둘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가설이겠지만, 칠성대와 성주를 연결시킴은 가능할 것인가. 김석익의 『탐라기념』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칠성대는 제주성 내에 있다. 세상에 전하길 삼을라가 개국하여 2도로 자리잡을 때 북두칠성을 모방하여 쌓은 것이다. 대의 터는 지금까지 질서정연하게 남아있다

일제강점기까지 북두칠성을 모방한 칠성대가 존재하였고 탐라개국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성주와 칠성대가 분명히 연관될 것으로 가설을 제시해보지만, 칠성대 역시 아직은 그 비밀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sup>45)</sup>

## V. 맷음말 :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니라 북서태평양의 일원으로서의 제주

탐라 및 제주를 해양문명사적으로 고구하는 작업은 제주를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닌 주체적 활동성을 지닌 섬으로 재조망하는 작업과 일치한다. 한반도에 딸린 섬으로서가 아니라 남방으로 진출한 북서태평양의 일원으로서의 제주란 입장에 선다면, 제주의 위상 자체가 달리 보인다. 본 연구에서 쿠로시오 해류권 등 남방적 세계와의 조우를 강조한 것은 제주의 북서태평양상의 위치를 충분히 감안한데서 비롯된다. 해양문명사적 견지에서는 그간의 모든 문명의 교류 근거를 인간과 인간만의 교섭 관계로 보는 데서 벗어나서 자연의 이동과 생태환경의 교섭관계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는 남방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 자연생

45) 칠성대를 들러싼 다양한 견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강문규(2006), 「칠성대는 왜 쌓았나」,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84-91쪽.

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어종·어법·식생활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껏 육지와의 비교분석이란 고정 잣대에서 벗어나 북서 태평양 해양문명권 전체와의 비교분석이란 개방적인 시각으로 ‘제주바당’ 연구의 시각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불었던 바람과 해류, 그리고 이를 이용하였던 해양력에 본 연구는 주목한 것이다.

국민국가적 시각에 젖어있는 다수에게 오늘의 제주도 ‘단군할아버지’ 아래 오천년 단일민족 신화’를 함께 누려온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육지에서 바라본 제주와 섬에서 스스로 바라본 제주도의 현격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제주 호칭은 탐라 멸망 이후의 일일 뿐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1229년(고종 16)에 제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종조에 탐라가 제주로 바뀌어 일개 ‘州’로 전락하였다. 삼별초 정벌 이후에 제주도가 원의 칙할지가 되면서 원에서는 제주라는 명칭 대신이 탐라라는 호칭을 다시 사용하여 제주도와 고려의 관계를 차단시켰다. 이후 1294년(충렬왕 20)에 제주가 고려에 반환되면서 다시 제주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명칭상의 역사적 변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 섬사람들의 뜻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탐라는 망각되었다. 탐라의 역사가 시야에서 사라진지 너무도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한국사 개설서에서 탐라는 제한적으로 언급되다가 원이 탐라총관부를 두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서 비로소 출생신고를 한다. 탐라의 역사적 망각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 근대민족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사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났다. 신용하의 표현을 빌린다면, 민족국가의 지배자가 된 다수민의 역사는 최대한 찬양하고, 그 내부에 포함된 이질적 소수집단의 역사는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근대의 역사관이 세계 전체에서 일제히 행세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역사는 중심—주변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내포하면서 전개되었지만 종래는 중심 부분만이 중시돼 주변 부분은 경시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중심—주변을 전체로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으로써 주변 부분의 존재의의에 빛을 비춰 그 역사적 가치를 높여야만 한다. 한국의 일반사(한국사)에 대한 제주사, 중국의 일반사(중국사)에 대한 대만사, 일본의 일반사(일본사)에 대한 류쿠사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일본—한국사 일반의 논리와 별개로 대만—류쿠—제주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역사관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러한 점에서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은 육지중심의 성찰과는 새로운 역사관을 부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漂海錄』

『海東歷史』

『史記』秦始皇本紀

『益齋亂藁』

『莊子』秋水篇

『耽羅志』

『唐會要』

강문규(2006), 「칠성대는 왜 쌓았나」,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고용희(2006),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도서출판 각.

김태호(1997), 「제주도의 해안지형」, 『탐라문화』 1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이기복(2003), 「潮汐·潮間帶와 어업생산풍습」, 『역사민속학』 16집, 한국역사민속  
학회.

정진술(1992), 「한국선사시대 해상이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2집.

주강현(2010), 「환태평양 화산권역의 섬과 신화의 탄생; 폴리네시안 대항해와 화산  
섬을 통한 여신의 탄생의 경우」, 『설문대할망과 바다』(탐라문화연구소 자료  
집).

주강현(2006), 『돌살-신이 내린 황금그물』, 들녘.

주강현(2008), 『적도의 침묵』, 김영사.

주강현(2011), 『제주기행』, 웅진지식하우스.

진영일(2005), 「고려시기 탐라의 ‘星主’와 ‘三神人’ 탐색」, 『탐라문화』 26집, 탐라문  
화연구소.

허남린(1994), 「제주도의 역사적 트포스-페리퍼리 그리고 프론티어」, 『탐라문화연  
구』 14집, 탐라문화연구소.

秋道智彌(2005), *Maritime Peoples of the Pacific An Anthropological Study*  
(이선애 역, 『해양인류학; 해양의 박물학자들』, 민속원).

- 茶圓正明・市川 洋(2005), 『黒潮』(かごしま文庫71), 春庭堂出版, 鹿兒島市.
- 安里嗣淳(2005), 「沖繩先史時代の貝文化」, 『선사시대 문화의 재발견』, 국립제주박물관.
- 鳥巢京一(1993), 『西海捕鯨業史の研究』, 九州大學出版會.
- Alfred Thayer Mahan(1932),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Little, Brown and Company.
- Andres von Brandt(1971), *Fish Catching Methods of the World*, Fishing News Books Ltd., England.
- Badrane Benlahctne(2005), *The Message in the Malay World, The Message & The Minsoon*, The Islamic Arts Museum, Kualalumpru.
- Christopher S.Lobban and Maria Scheftner(1977), *Tropical Pacific Island Environments*, University of Guam Press, Guam.
- Fernand Braudel(2006), *LES-MEMORIES DE LA MEDITERRANEE*, Paris, 1998(강주현 역, 『지중해의 기억』, 한길사).
- Handy, Emory, Bryan, Buck, Wise and Others(1999), *ANCIENT HAWAIIAN CIVILIZATION*, Mutual Publishing, Honolulu.
- Patrick Vinton Kirch(2000), *On the Road of the Wind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Rachel Carson(1951), *The Sea Around Us*(이충호 역(2003), 『우리를 둘러싼 바다』, 양철북).

Abstract

Maritime history of civilization, reflection 'Tamla' and 'Jeju'

Joo, Kang-Hyun\*

'Tamla' and 'Jeju' is often mixed. However, bother, the combination of two names' Tamla era ' and 'Jeju era' of long-term give us a real perspective history of this island. The history of the Tamla is still mystery untill now. First, this island is essent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an 'island' is that it should be. The Maritime power of Jeju is very strong, but we know a little. Tamla shipbuilding and sailing can be demonstrated in several articles. If we find archeological heritage or wrecked ship at submarine, we can rewrite history, but untill now we can find. From this perspective, I can point up many Maritime power of jeju; marine network of wind power and navigator, the Kuroshio currents through natural and human hypothesis on the voyage. In conclusion, in this study my major viewpoint is cocnentrate on the islands, but as a member of the Pacific Northwest and emphasize on a identity of Jeju.

Key Words

Maritime history of civilization, wind, Kuroshio currents, maritime power, seongju (星主)

---

\* Tamla Culture Researc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주강현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asiabada@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2. 12. 22.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